

해외 아세안 ODA 정책 동향

영국



영국의 대 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최근 영국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The UK-ASEAN Catalytic Green Finance Facility (ACGF) Trust Fund를 통해 아세안에 1억 3천 4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기금은 아세안 국가들의 녹색금융 및 저탄소 성장,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반 시설 확충을 가속화하고 이에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ADB 2022).

The ACGF Trust Fund는 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논의된 The ASEAN Green Recovery Platform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이 플랫폼은 영국 정부 및 이탈리아 국채 투자은행(CDP, Cassa Depositi e Prestiti), 유럽 연합, 녹색기후기금(GCF)이 총 6억 6천 5백만 달러를 함께 출자해 설립되었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돕고 기후 탄력적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e ACGF Trust Fund는 추가로 20억 달러를 더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29개의 녹색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56억 달러의 녹색 채권(Green Bonds) 발행을 자문했다(ADB 2021a).

The Blue SEA(Southeast Asia) Finance Hub는 The ACGF Trust Fund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건강한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4의 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과 연계하여 향후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발전시킬 계획이다(ADB 2021b).

지난 30년간 아세안 국가들은 개발원조의 도움으로 높은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와 빈곤의 감소를 이뤄냈다. 19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중하위 소득 국가가 되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위기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은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고 지역 내 경제 불균형으로 인한 팬데믹 회복 속도에 차이가 생기며 정치적 내부 균열도 심화되고 있다.

아세안의 급변하는 정치 환경 및 경제 성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삶의 양식, 생계 및 세계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도시화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아세안의 발전의 큰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이 지역 도시화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이 국가별로 다양한 속도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도시화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50%를 넘어섰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도시화율은 100%이다. 두 번째로, 동남아시아의 도시화는 주요 도시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서구의 도시화 과정과는 다르게 여전히 도시 인구의 70% 이상이 인구 100만 미만의 중소 도시에 거주 중이며 인구의 20% 정도만이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인구 천만 이 넘는 거대도시는 아직 마닐라와 자카르타 두 곳 뿐이다(Dahiya 2014).

이런 다양한 크기의 도시들은 각자 고유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빈곤,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도시별 인구밀도와 환경지리적,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규모의 통합 엔지니어링 및 경영, 개발 컨설턴트 기업인 모트 맥도널드(Mott MacDonald)는 영국 정부가 설립한 The Global Futures Cities Programme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도시들에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 관련 포트폴리오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모트 맥도널드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리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모트 맥도널드가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건, 교통, 수도, 환경 계획 관련 기술을 아세안 지역 기반 지식과 영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당 도시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Global Future Cities Programme 2022).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도시화 및 이에 따른 개발 문제들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지역화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한-아세안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공적 기금과 민간 협력을 통한 영국의 대아세안 ODA 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ADB, 2022, \$134 Million UK Fund to Help Catalyze Green Financing in Southeast Asia, 7월 6일, <https://www.adb.org/news/134-million-uk-fund-help-catalyze-green-financing-southeast-asia> (2022년 12월 12일 검색).

_____, 2021a, Partners pledge \$665 million to support green recovery in ASEAN, 11월 2일, <https://www.adb.org/news/partners-pledge-665-million-support-green-recovery-asean> (2022년 12월 12일 검색).

_____, 2021b, The Blue SEA Finance Hub, 12월 16일, <https://www.adb.org/news/videos/blue-sea-finance-hub> (2022년 12월 12일 검색).

Dahiya, B. 2014, Southeast Asia and Sustainable Urbanization, 9월, https://www.globalasia.org/v9no3/feature/southeast-asia-and-sustainable-urbanization_bharat-dahiya (2022년 12월 12일 검색).

Global Future Cities Programme, 2022, The Global Future Cities Programme, <https://www.globalfuturecities.org/global-future-cities-programme> (2022년 12월 12일 검색).]

정진호 University of Oxford, School of Geography and the Environment (SoGE), Transport Studies Unit (TSU) 연구원 (jin-ho.chung@ouce.ox.ac.uk)